

농장방역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강 문 일 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학박사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유입 시기가 도래되어 방역당국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강화를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구제역 발생국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구제역 발생사례에 대한 언론보도가 매우 드물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02년도 이후 6년간 비발생으로 구제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사료 값의 인상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는 등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어, 예년에 비하여 구제역의 국내 유입·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00년 및 '02년 우리가 직접 경험하였던 구제역의 위험성은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축산농가에서 겪어본 바 있어 농장단위의 소독 등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모르는 양축가들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재난형 질병인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이 한번 발생하면 축산업의 붕괴와 더불어 국가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철저한 가축의 이동관리를 들 수 있다.

밀을만한 농장에서 구입하되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 중요 질병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을 꼭 확인하고 떨이기축의 구입은 절대 삼가야 한다. 구입 후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 기존 사육가축과 격리하여 사육하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존 사육가축과 합사하여야 한다.

둘째,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방역 실천의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외부적인 요인에 엄격한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도 정작 사육되는 가축과 가장 접촉이 잦은 본인에 대하여는 관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장 등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각종 병원체가 오염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통제와 소독이 필수적이며, 농장 방문자는 반드시 소독된 방역복, 장화(방역용 덧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출입 시 마다 축사입구에 설치된 소독조에 신발을 담가 소독 실시하여야 한다.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특히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일 또는 1일 수회 이상 소독 실시한다.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 소독조는 차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어야 하며, 2~3일 간격으로 소독수(소독조에 사용되는 권장 소독약으로는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 2% 글루타알데히드 등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 같이주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등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파악은 꼭 필요하다)할 때에는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옷이나 신발 및 개인 휴대품을 세척·소독하고 축산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소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농장에서 착용할 작업복과 장화를 따로 지급하고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외출 후 귀가 시에도 반드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손과 장화를 소독한 다음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농장 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사료배달 차량, 가축출하 차량은 가능한 경우 지정차량만 농장내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농장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가급적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차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대한 조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농장 간에 드나드는 쥐나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해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장 여건에 맞는 야생동물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나 고양이도 반드시 일정 구역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난형 질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 농장을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에도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장단위의 차단방역과 소독 등의 방역관리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양축농가의 실천 의지가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양돈**